



하나금융그룹, 스마트 홍보대사 발대식

하나금융그룹은 6일 서울 명동 사옥 대강당에서 '제12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스마트 홍보대사는 금융권에서는 유일한 그룹 차원의 홍보대사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쳐 끌어와 재능,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60명의 대학생이 선발됐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가운데 정장 차림)이 스마트 홍보대사로 선발된 60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Q. A씨는 오랫동안 살고 있던 동네가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A씨는 행정청의 정비구역 지정을 법적으로 다투 수 있을까?

A. '정비구역'은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의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경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는 건물의 신축, 증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등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행정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시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처분을 알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정비구역의 '변경 고시'가 있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어떠할까? 기존 정비구역 고시 내용 중 분리 가능한 일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토지등소유자는 기존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에 하자가 있음을 들어 소를 제기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17362 판결). 그러나 정비구역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비구역 고시에 해당한다면, 기존 정비구역 고시는 소멸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기존 정비구역 처분의 취소를 다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어느 경우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당초 정비구역에 포함됐으나 해당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위 토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비록 사업지 면적이 일부 감축되고 정비구역 내의 총 건축물 수가 2동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2009누17362 판결). 즉 원고는 여전히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효력을 대해 다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위법할 때도 있다.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행정청이 행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법원은 당해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사실 오인, 비례원칙의 위배,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해 이루어진 경우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었다고 본다. 특히 여기서 비례원칙의 위배란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권리를 최소한 침해해야 하며, 그 침해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원칙을 말한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정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안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합리적인 사실 인정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09. 4. 30. 선고 2007구합26278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됨).

정비구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시장, 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무효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2051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돼야 한다. 그런데 이 범위가 확정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비구역 변경 고시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 수 있는지,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위법한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법무법인 바른



CJ제일제당, 올해 봉사활동 임직원 5000명 돌파

CJ제일제당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 수가 5000명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봉사 참여 인원이 5000명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약 2000명이 참여했던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CJ제일제당 임직원들이 헛반 용기를 활용해 미니 정원을 만드는 '햇반 가드닝'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CJ제일제당



롯데칠성, 문체부 주관 여가친화기업 선정

롯데칠성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여가친화기업 인증식에서 '2018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문체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이우성 실장(왼쪽)과 롯데칠성 음료 정찬우 지원부문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오리온, 연말 맞아 情나눔 릴레이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오리온의 정 문화를 실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1월부터 27일까지 약 2주간 오리온 본사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내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 유소년 체육활동,장애인 베이킹 작업 훈련 보조, 경로식당 급식 등 네 차례에 걸쳐 릴레이로 진행한다.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

아모레퍼시픽은 립 슬리핑 마스크 제형 개발 기술로 '2018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은 수 많은 실험을 바탕으로 기존 립 케어 제품보다 보습이 오래 지속되고, 각질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나이트 립 케어 기능의 립 슬리핑 마스크를 개발했다.

/아모레퍼시픽

장 김범우 감사실장 △김용직 Battery최적화실장 △김우현 Investment Group임원 △김일수 R&D추진혁신실장 △김창욱 Battery마케팅실장 △김철중 OA실장 △김태진 기반기술연구소장 △목영삼 E Mobility Group임원 △박두운 중국사업담당 △박현철 Biz.환경Grup임원 △선희영 Battery선행연구실장 △윤형조 Battery사업지원실장 △이동훈 이사회사무국장 △이준하 Cell개발실장 △정인보 SV추진단장 △조대희 E mobility Group임원 △지승영 HR전략실장 △최영호 LIBS사업부장 △SK에너지(승진) △김종화 Engineering본부장 △오종훈 BM혁신본부장(신규 선임) △박성길 원유·제품운영실장 △박재홍 동력공장장 △옥진규 기계장치·검사실장 △이영철 남부사업부장 △SK종합화학(시장 승진) △나경수(승진) △김동훈 BM혁신본부장(신규 선임) △권오성 중국경영지원실장 △김경오 Polymer공장장 △김종현 SKGC America대표 △최안섭 최적운영실장 △최우진 Olefin공장장 △SK루브리컨츠(신규 선임) △김명철 기초적화실장 △박지원 윤활유 Global사업부장 △임재욱 경영전략실장 △SK인천석유화학(신규 선임) △이호진 SHE-Tech실장 △정준영 생산관리실장 △SK트레이딩&테크(시장 승진) △서석원 SKT텔레콤(승진) △유영상 MNO사업부장 △윤영숙 Corporate센터장 △이현아 AI기획·개발Unit장(신규 선임) △김충식 Comm.센타PR담당 △김무한 SK TTA사업개발담당 △리만강 HR그룹장 △류병호 Innovation Suite 임원 △문갑인 Smart Device그룹장 △송광현 PR2실장 △신용식 Smart City Unit장 △염성진 CR 성장지원실CR지원담당 △이기영 뮤직사업TF장 △IRI VER 전략기획그룹장 △이기윤 고객기자회선실장 △이상구 Biz.메시징담당 △이준호 수도권마케팅본부장 △전진수 Media Labs장 △체종근 윤리경영실장 △법무그룹 Compliance담당 △최우진 SKT대표 △하근만 서부Infra본부장 △송홍승 통합유통Infragroup장 △이상범 SK브로드밴드프로젝트리이브 리더 △박종석 SK 브로드밴드 경영기획실장 △최봉길 SK 브로드밴드 기업문화실장 △유재호 11번가사업기획그룹장 △한은석 ADT캡스 전략기획부부장 △SK텔레콤 5GX보안사업그룹장 △SK하이닉스(시장 승진) △이석희 김동섭 대외 협력총괄(승진) △오종훈 강영수 △권원택 △김상근 △김형수 △사태진 △이상락 △차선용(신규 선임) △권기창 △김형수 △도창호 △박명수 △박성환 △박근수 △박창현 △송지화 △신정호 △이상원 △정상록 △조민상 △정유석 △SK건설(시장 승진) △이재현 △임영문 경영지원담당자장(CFO) △전승태 건축주택사업부문장(신규 선임) △김광국 SHE실장 △김병관 Oil&Gas마케팅본부장 △박종수 기업문화실장 △방성준 CPP Program담당 △이달환 Hi-Tech PJT PD △장용진 건축상품개발실장 △조현진 Telecom사업부본부장 △SK E&S(승진) △문상학 전력사업부문장 △안진수 경영지원부문장 △사국진 충청에너지서비스 대표(신규 선임) △문상요 LNG System본부장 △유한성 감사실장 △최

윤호 Energy Solution Group장 ◇SK디스커버리 <신규 선임> △김기동 재무실장 ◇SK케미칼(사장 승진) △전광현 Life Science Biz. 시장(신규 선임) △김한석 공정개발연구실장 △박진선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1실장 △박현선 마케팅3분부장 △안정범 에너지·유화사업부장 △이란주 SK플라즈마 안동QU실장 겸 오산QU실장 ◇SK네트웍스(승진) △김구태 현장경영본부장 △서보국 정보통신부문장 △강석현 Skpinx 대표(신규 선임) △류성희 지속경영실장 △박상혁 철강사업부장 △안민우 현장경영본부 담당임원 △이보령 Most사업부장 △이상표 HR실장 △하성문 ICT사업부장 ◇SKC(승진) △오준록 성장사업부문장 겸 SKC솔루션 대표 △피성현 경영지원부문장 <신규 선임> △이종혁 마케팅2본부장 △정지협 PO/PO사업부본부장 △전병수 재무지원실장 △최갑용 밤부지원실장 ◇SKGAS(시장 승진) △윤병식 <신규 선임> △고정석 신성장에너지실장 △박진석 기업문화실장 ◇SK마티리얼즈(승진) △이규원 경영관리본부장 겸 SK에어가스 대표 △손병현 생산본부장(신규 선임) △박기선 CRD부본부장 겸 SK트리켐 대표 △이상경 SK트리켐 연구영업실장 ◇SK실트론(승진) △최근민 제조기술총괄 △이형년 영업부문장(신규 선임) △박진국 MS제조그룹장 △정경훈 재무관리실장 △조운준 LS제조그룹장 ◇SUPEX추구협의회(승진) △이수형 PR팀장 △노찬규 PR팀 임원 △이현영 HR지원팀 임원(신규 선임) △성은경 전략지원팀 임원 △장호준 전략지원팀 임원

◆한화건설(승진) △사장 최광호 △전무 이원수 △상무 윤용상 △상무보 고강석 △권오정 김윤래 김종출 이상국 이웅우 전재민 정지열 ◆한화도시개발(승진) △상무보 기기

◆대보그룹 ◇이대보건설 △이사 김현태 임재우 △이사대우 우경수 △대보정보통신 △이사 정민우 채승연 △이사대우 김정현 △이대보유통 △이사대우 이영호

◆한일시멘트그룹 ◇한일시멘트 △전무 심용석 △이사 대우 이자규 ◇한일네트웍스 △상무 박재수 △상무 최동규 ◇한일산업 △상무 한정희 △이사 대우 이종훈 ◇한일건재 △상무보 신현준 ◇한일인터내셔널 △전무 김영진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김정희 △국제화공과장 신윤근 △신교통개발과장 박준상

◆우정사업본부 △재정기획담당관 이남훈

부 음

▲하만수씨 별세, 하정호(아이비 이사)·원호(JTV전주방송 송기자)·기정(시인)씨 부친상, 전상호(서울 양천경찰서) 씨장인상, 한주연(KBS 전주총국 기자)씨 시부상=6일 오전,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실, 발인 8일 오전 9시 30분, 063-250-1443
▲김안나씨 별세, 김호웅(문화일보 사진부 부장)씨 장녀상, 김로사씨 언니상=경기 고양시 일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31-900-0444